

# 중년과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 영향요인

김미정<sup>1</sup> · 김귀분<sup>2</sup>

<sup>1</sup>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박사수료, <sup>2</sup>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

## Influenc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for the Middle Aged Adults and Elderly

Kim, Mi Jeong<sup>1</sup> · Kim, Kwuy Bun<sup>2</sup>

<sup>1</sup>Doctoral Student,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Seoul; <sup>2</sup>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psychological well-being on psycho-social in the elderly and middle aged Adults. **Methods:** A sample of the 209 elderly and 181 middle aged adults. Data analysis was done by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in gender, religion, education, marital status, occupation and family coresidence in homogeneity tests. Second, psychological well-being, hope, self-esteem,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each other in the both groups. Thir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well-being, hope, self-esteem and depression between two groups. For middle aged adults self-esteem was influencing most in psychologic well-being while hope affected most for the elderly.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it is important to improve psychological well-being to prepare successful elderly life.

**Key Words:** Middle aged adults, Elderly, Psychological well-being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노인의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노인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이 중에서 신체적 건강의 약화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고독감, 소외, 경제적 능력의 상실, 부양 문제, 역할상실 등의 문제는 노인들에게 스트레스나 우울을 유발시켜 심리적 건강을 약화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 문제는 최근 노인들의 자살률 증가와 더불어 그 심각성이 더욱 더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의 발달에 힘입어 2013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전체인구 중 12.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향후 초 고령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3), 이와 같은 현상은 젊은 세대와 사회에 부양부담과 책임을 가중시키며 국가 정책 변화에 큰 과제를 안고 있다.

노화는 정상적인 인간의 성장과 발달과정의 하나로 시간의 흐름

에 따라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삶의 마지막을 향해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며, 이 과정은 개별적이 아닌 각 단계들이 다음 단계에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즉, 중년기는 개인과 가족 및 사회적 환경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 시기이기도 하나, 건강의 점진적인 쇠퇴와 배우자의 죽음 혹은 은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이고, 노년기의 삶이 중년기의 삶의 모습, 생활양식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노년기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망해 보고 계획하여 미래에 대한 대책을 계획·준비하는 중년기의 삶을 조망해 보는 것도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중년기는 한 가정의 가장이자 그 문화 집단의 사회적인 중추역할 담당자로, 위로는 집안의 어른을 모셔야 하고 아래로는 자녀를 돌보아야 하며, 특히 한 사회를 이끌어 가는 역군으로 그들의 역할무게는 과중할 정도의 부담감이 있는 세대이다. 따라서 중년기의 위기관리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 이상의 것으로, 이들의 시기가 잘못 이행될 경우 다음 노년기 역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므로, 중년세대의

**주요어:** 중년, 노인, 심리적 안녕감

Address reprint requests to: Kim, Kwuy Bun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24 Kyungheedaero, Dongdaemun-gu, Seoul, Korea  
Tel: +82-2-961-0314 Fax: +82-2-961-9398 E-mail: kuikim@khu.ac.kr

투고일: 2013년 9월 24일 심사완료일: 2013년 11월 22일 게재확정일: 2013년 11월 27일

위기관리, 즉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주요 하리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중년의 세대에 연이어 바로 노년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때 중년시기가 그대로 이행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모든 역할에서 자신감 있게 활동적이던 중년기에서 신체, 정신, 생물학적으로 능력이 감퇴되면서 건강수준도 저하될 뿐만 아니라 실직과 은퇴 등의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자아 존중감이 상실되고 자녀들의 출가로 외로움과 소외감 등 4고(四苦)를 겪어야 하는 노인에게 중년보다 더 심리적 안녕감이 중요한 요소이다.

심리적 안녕감이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질적 수준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정도를 의미하며(Veenhoven, 1991), 심리적 안녕감, 즉 주관적 안녕감은 인지적인 측면인 생활 만족도와 정서적인 측면인 긍정적, 부정적 정서의 요소를 지니는 것으로 객관적이고 외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내적인 주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삶에 대한 전반적이고 통합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Cho, 2007). 한편 McDowell과 Newell (1996)은 주관적 안녕감은 일상생활 사건에 사람들이 적응하면서 느끼는 정서로서 환경에 대한 개인의 반응이나 환경의 자극과 개인적 반응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개인의 지각된 주관적인 경험에 기초한 행복감 또는 전체적인 감정을 일컫는 것으로, 자아 존중감이 수반된다. 즉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행동을 독립적으로 혹은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고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있으며 삶의 목적이 있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려는 동기, 즉 자아성취감과 동시에 자아존중감이 있음을 의미한다(Kim, Kim, & Cha, 2001).

자아 존중감은 인간의 정신 사회적 건강의 기초가 되고, 질적인 삶을 유지시켜 주는 기반이 되는데, 자아 존중감이 저하되면 주변 환경을 조절하는 능력에 대한 신념도 감소하므로 자아 존중감의 감소는 건강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Lee, 1998). 인간에 있어 역할은 자기가치에 대한 중요한 요소로서, 사회적 지위 및 역할 상실은 자아 존중감에 부정적인 역할을 미치게 된다(Miller, 1975). 따라서 자아 존중감은 삶의 질을 측정하는 수단으로서(Taft, 1985), 자아 존중감은 노인의 성공적인 인생에 있어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 된다(Choi, Chae, & Song, 2009).

따라서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인생을 의미 있고 중요한 것으로 바라보며, 학문적 수행이 우수하고, 실패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적으며, 심리적 손상을 적게 경험하고, 적절하게 분노를 표현하며,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이후에 수행을 더 잘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낮은 사람들은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Lee, 1997).

우울이란 전 세계인의 15% 정도가 경험하게 되는 인간에게 가장 흔히 나타나는 심리적 변화로, 삶의 의미, 흥미, 즐거움이 전반적으

로 감소되는 고통스러운 감정이다. 또한 정서적 기분 변화에서 병적 상태에 이르기까지 연속선상에 있으며, 근심, 침울함, 실패감, 무력감 및 무가치함을 나타내는 정서장애로서(Kim, 2006; Vogel, 1982), 이때 출현되는 희망은 인간으로 하여금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희망이란 “앞일에 대하여 어떤 기대를 가지고 바라거나 또는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 상호반응에서 생기는 동기체계를 활성화시켜 개인적으로 중요하고 불확실하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다차원적인 생의 활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강한 내적인 힘을 지녀서, 인간 삶에 중요한 동기원으로서 생존, 치료에 대한 반응, 질적인 삶 및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친다(Beck & Weissman, 1974). 희망은 낙관주의 성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희망 정도가 높을수록 현실 가능한 목표를 수립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삶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유도하여(Beck & Weissman, 1974), 결국 생활만족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 된다.

생활만족이란,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개인이 느끼는 행복으로 주관적인 지각이며, 긍정적인 자아상과 태도 등 생활 전반에 걸친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의 총체적 개념으로서, 행복, 환경에 대한 긍정적 적응, 어려운 상황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된다(Kim et al., 2002). 즉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살아온 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을 말한다(Kim, 1986; Kim, 1998). 중년과 노인의 생활만족의 개념은 현재의 생활 전반에 관한 만족이라는 단일차원보다는 한 개인이 노화해 가는 현실에 성공적으로 적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생애 전반에 걸친 지표로 파악되어야 하며, 한 개인이 살아온 생활역사에 대한 과거 및 현재의 삶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미래의 삶과 활동의 전반적인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정도를 말한다.

중년,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심리적 안녕감은 잠재력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표출되는 행동과 동반하는 감정으로(Ryff, 1989), 심리적 안녕감은 삶의 의미에 영향을 미쳐 삶의 의미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 행복, 자아 존중감,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 적극적인 삶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 태도와 관련이 높으며(Chon & Park, 2006), 성공적인 노화, 자아 존중감, 생활만족, 경제적 능력과 유관하며(Choi, 1986; Mutchler, Burr, Massagli, & Pienta, 1999), 모든 인간, 특히 중년과 노년에 있어 중요한 개념은 심리적 안녕감 내지 만족감을 경험하고 지속적인 직업 활동 욕구 실현, 활발한 사회참여 및 자기관리(Chon & Park, 2006)를 통한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기능적 퇴화방지(Kim et al., 1999)와 자신을 충분히 실현시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해내게 하는 자기 성취감이 필요하다. 삶의 만족 내지 생활만족이 높은 상태인 심리적 안녕감이 확보될 때 성공적 노화가 이루어지므로(Wong, 1989), 이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 및 효과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상 선행 연구 대부분 자아성취감과 연관된 개념, 즉 심리적 안녕감, 인지된 건강상태, 생활만족도, 삶의 의미를 중심으로 연구되었고, 대부분의 연구대상이 아동, 청소년, 스포츠, 여성 등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인간의 성장 발달 단계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년과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중년과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그 영향 변인을 중심으로 이들에게 보다 성공적인 노화로 자신의 노후를 신체, 심리, 정서 및 영적으로 건강하고 긍정적인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중년에게는 노년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노인은 기존환경을 그대로 수용하고 즐기면서, 두 집단 모두 향후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 제공 및 방향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중년과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중년과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위한 중재를 개발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중년과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희망, 자아 존중감, 우울, 생활만족도와와의 관련성을 확인한다.
- 2) 중년과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 영향요인을 확인·비교한다.

##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중년과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 영향요인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자가 보고식 설문조사법(survey method)을 이용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인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자료, 서울에 거주하는 중년(40-64세) 181명과 65세 이상 노인 209명, 총 390명을 임의 표집방법에 의해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G-POWER 3.1.7 버전(Erdfelder, Faul, & Buchner, version 3.1)으로 산출한 결과 다중 회귀 분석을 위해 유의 수준 .05, 검정력은 95%, 효과크기는 .3으로 하여 각각 최소 123명의 대상자가 필요하나, 본 연구에서는 중년 181명, 노인 209명을 통계 처리하였다.

### 3. 자료 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 수집은 본 대학 연구윤리위원회(KHU IRB 2012-S27) 승인 후, 2012년 5월 6일부터 28일까지 도구선정을 위해 임의로 선정된 50명을 대상으로 1차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2차 본 연구는 대상자에게 연구의 내용과 목적을 설명한 후 동의를 얻어 설문지를 배분하고 자가 보고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2012년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1인당 약 40분 이상 소요되었다.

### 4. 연구 도구

#### 1)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측정도구는 Ryff(1989)가 개인의 삶의 질에 이용한 6가지 차원의 척도 중 Cho(2007)가 재구성한 총 18개 문항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Cho(200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0$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5$ 였다.

#### 2) 희망

희망 측정도구는 Synder와 Harris 등(1991)이 개발하고, 연세대학교 상담심리연구실(2007)에서 변안한 한국판 희망척도를 Choi(2008)가 사용한 도구로, 총 11문항 4점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희망적임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Choi(2008)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8$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2$ 였다.

#### 3) 자아 존중감

노인의 자아 존중감 측정도구는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Jon(1974)이 변안하여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10문항(5개의 긍정문항, 5개의 부정문항으로 부정문항은 역 환산) 5점 척도로, 가능한 점수범위는 10-5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5$ , Jon(1974)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4$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5$ 였다.

#### 4) 우울

노인의 우울 측정도구는 Kee(1996)의 한국판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 Korea, GDSSF-K)를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15문항 5점 척도로, 가능한 점수범위는 15-7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Kee(199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8$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7$ 이었다.

5)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 측정도구는 Diener 등(1985)이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도구로서, Hwang (2004)이 수정 보완한 총 5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 (200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79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84였다.

5.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20.0 Program을 이용하여 연구 목적과 변수의 특성에 따라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 검사인 Cronbach's-α 테스트를 실시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연구변수에 대한 분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두 집단 간 동질성 검증은 X<sup>2</sup>-test를 실시하였다.
- 2) 두 집단의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는 Pearson's 적률상관계수로 연관성을 검토하였다.
- 3) 두 집단의 심리적 안녕감 관련 변수(희망, 자아 존중감, 우울, 생활만족도)의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 4) 두 집단 간 심리적 안녕감과 연구변수(심리적 안녕감, 희망, 자아 존중감, 우울, 생활만족도)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성별, 종교, 교육, 결혼상태, 직

업, 건강상태, 동거가족)는 Dummy로 공 변수(ANCOVA) 처리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집단 간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동질성 검증

연구 대상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Table 1), 중년집단의 남성 비율은 24.3%, 노인집단의 남성 비율은 34.0%로 노인집단의 남성 비율이 더 많았고, 여성 분포는 중년(75.7%)이 노인여성 비율(65.6%)보다 높았으며, 두 군 간의 동질성 검증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sup>2</sup> = 4.49, p = .034). 다음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를 가지고 있는 비율은 중년(73.5%)이 노인(59.8%)보다 많았으며, 두 군 간의 동질성 검증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sup>2</sup> = 7.43, p = .004). 교육은 중년(26.5%)집단의 경우 대학교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노인(13.9%)보다 많았고, 노인집단의 대부분은 고등학교 이하의 중등교육 수준(74.2%)인 것으로, 두 군 간의 동질성 검증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sup>2</sup> = 13.72, p = .001). 결혼 상태에서는 중년집단(76.8%)이 노인(60.3%)보다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이 높아, 두 군 간의 동질성 검증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sup>2</sup> = 14.11, p = .001). 직업유무에서 중년(68.0%)이 노인(34.9%)보다 직업이 있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 두 군 간의 동질성 검증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sup>2</sup> = 42.64, p < .001). 건강상태 역시 노인(32.1%)의 경우 건강하지 않

Table 1. Middle Adults and Elderl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Homogeneity-verified (n = 390)

Characteristics	Categories	Middle adults (n = 181)	Elderly (n = 209)	X <sup>2</sup>	p
		n (%)	n (%)		
Gender	Male	44 (24.3)	71 (34.0)	4.49	.034
	Female	137 (75.7)	137 (65.6)		
Religion	Yes	133 (73.5)	125 (59.8)	7.43	.004
	No	48 (26.5)	82 (39.2)		
Level of education	None	9 (5.0)	25 (12.0)	13.72	.001
	Middle school graduates	124 (68.5)	155 (74.2)		
	High school graduates	48 (26.5)	29 (13.9)		
Marital status	The couple	139 (76.8)	126 (60.3)	14.11	.001
	Divorce/Spouse death	39 (21.5)	83 (39.7)		
Occupation	Yes	123 (68.0)	73 (34.9)	42.64	.001
	No	57 (31.5)	135 (64.6)		
State of health	Healthy	151 (83.4)	142 (67.9)	12.44	.001
	Not healthy	30 (16.6)	67 (32.1)		
Economic level	Well live writer	21 (11.6)	23 (11.0)	0.07	.966
	Usually	126 (69.6)	148 (70.8)		
	Wrong living is universal	34 (18.8)	38 (18.2)		
Type of living with family	Living of spouse	38 (21.0)	74 (35.4)	16.29	.001
	Living alone	33 (18.2)	48 (23.0)		
	Living with son's and daughter's family	110 (60.8)	84 (40.2)		

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이 중년(16.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두 군 간의 동질성 검증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X^2=12.44, p<.001$ ). 동거 가족관계를 보면,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중년(60.8%)이 노인(40.2%)보다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두 군 간의 동질성 검증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X^2=16.29, p<.001$ ). 경제적 수준과 관련해서는 두 집단 모두 보통수준(중년 = 69.6%, 노인 = 70.8%)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잘산다고 생각하거나 못산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서로 비슷하였으며, 두 군 간의 동질성 검증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X^2= 0.1, p=.966$ ).

**2. 두 집단의 연구변수 간 상관관계**

1) 중년의 연구변수 간 상관관계

중년의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Table 2), 심리적 안녕감과 희망과의 상관계수가 .63으로 희망이 높은 사람들은 심리적 안녕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은 자아 존중감( $r=.64, p<.001$ )과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r=.45, p<.001$ ), 우울감이 낮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65, p<.001$ ).

희망과 영향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희망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r=.65, p<.001$ ), 생활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40, p<.001$ ). 그리고 희망적인 사람일수록 우울감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65, p<.001$ ). 자아 존

**Table 2. Compare the Correlation between Research Variables in Middle Adults (N = 181)**

	Psychological well-being	Hope	Self-esteem	Depression	Life satisfaction
Psychological well-being	1.00				
Hope	.63***	1.00			
Self-esteem	.64***	.65***	1.00		
Depression	-.65***	-.65***	-.72***	1.00	
Life satisfaction	.45***	.40***	.33***	-.47***	1.00

\*\*\* $p<.001$ .

**Table 3. Compared the Correlation between Research Variables in Elderly (N = 209)**

	Psychological well-being	Hope	Self-esteem	Depression	Life satisfaction
Psychological well-being	1.00				
Hope	.64***	1.00			
Self-esteem	.50***	.60***	1.00		
Depression	-.62***	-.56***	-.53***	1.00	
Life satisfaction	.36***	.37***	.32***	-.35***	1.00

\*\*\* $p<.001$ .

중감과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생활만족도( $r=.33, p<.001$ )와 우울 ( $r=-.72, p<.001$ ) 간 높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우울감이 높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생활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r=-.47, p<.001$ ).

2) 노인의 연구변수 간 상관관계

노인의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Table 3), 심리적 안녕감과 희망과의 상관계수가 .636으로 희망이 높은 사람들은 심리적 안녕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r=.50, p<.001$ ),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r=.36, p<.001$ ), 우울감이 낮을수록( $r=-.62, p<.001$ ) 심리적 안녕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과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희망적일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r=.60, p<.001$ ), 생활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37, p<.001$ ). 그리고 희망적인 사람일수록 우울감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56, p<.001$ ). 그리고 생활만족도가 높고( $r=.32, p<.001$ ), 우울 정도가 낮을수록( $r=-.53, p<.001$ ) 자아 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우울감이 높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생활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r=-.35, p<.001$ ).

**3. 중년과 노인의 연구변수 차이 비교**

중년과 노인 간의 심리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즉 희망, 자아 존중감, 우울,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지 검정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여 평균값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Table 4), 심리적 안녕감 정도는 중년이나 노인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t=3.61, p<.001$ ), 희망( $t=2.81, p<.05$ ), 자아존중감( $t=4.05, p<.001$ ), 우울도에 유의한 차이( $t=3.28, p<.0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활 만족도( $t=-0.93$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mpared to the Average between Research Psychological Well-being Middle Adults and elderly (N = 290)**

		N	Mean	S. D	t	Sig
Psychological well-being	Middle adults	181	3.301	0.404	3.61***	.000
	Elderly	209	3.155	0.394		
Hope	Middle adults	181	2.091	0.367	2.81*	.042
	Elderly	209	2.607	0.352		
Self-esteem	Middle adults	181	3.423	0.602	4.05***	.000
	Elderly	209	3.199	0.490		
Depression	Middle adults	181	3.292	0.537	3.28***	.001
	Elderly	209	3.110	0.555		
Life satisfaction	Middle adults	181	2.737	0.732	-0.93	.351
	Elderly	209	2.806	0.722		

\* $p<.05$ ; \*\*\* $p<.001$ .

4. 중년과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 영향요인

1) 중년의 심리적 안녕감 영향요인 분석

중년의 경우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심리적 안녕감과 연구변수(심리적 안녕감, 희망, 자아 존중감, 우울, 생활만족도),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유의한 차이 있는 변수(성별, 종교, 교육, 결혼상태, 직업, 건강상태, 동거가족)는 Dummy로 공변수(ANCOVA) 처리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Table 5), 자아존중감, 희망, 우울, 결혼상태 변수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생활만족은 심리적 안녕감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모형의 설명력은 51.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최종 회귀모형의 유의성은  $F=51.7$  (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임이 입증되었다.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 순서는 표준화계수의 크기에 따라 비교하여 볼 수 있는데, 희망, 자아 존중감, 우울, 결혼상태 순으로 나타났다. 공차한계는 독립변수에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분산이므로 공차한계가 클수록 좋은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VIF는 1/공차한계이므로 그 값이 클수록 좋지 않은 독립변수인데 3 이상인 경우 독립변수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9 이상인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본 모형에서 VIF는 모두 3 이하로 독립변수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차항의 P-P Plot을 살펴본 결과, 정규분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2)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 영향요인 분석

노인의 경우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심리적 안녕감과 연구변수(심리적 안녕감, 희망, 자아존중감, 우울, 생활만족도),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성별, 종교, 교육, 결혼상태, 직업, 건강상태, 동거가족)는 Dummy로

공변수(ANCOVA) 처리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Table 6), 희망, 생활만족도, 우울변수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영향력의 순서는 희망, 우울, 생활만족도 순으로 희망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중년집단은 자아 존중감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과 비교된다. 최종모형의 설명력은 59.4%로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며, 최종 회귀모형의 유의성은  $F=97.1$  (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 순서는 표준화계수의 크기에 따라 비교하여 볼 수 있는데 희망, 우울, 생활만족도 순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의 진단에 있어서도 VIF는 모두 3 이하로 독립변수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차항의 P-P Plot을 살펴본 결과, 오차항들은 대체로 정규분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논 의

본 연구는 노인이 될 45세 이상 중년과 현재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의 영향요인을 희망, 자아 존중감, 우울,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재확인함으로써, 향후 그들을 위한 간호에 도움이 되고자 지역사회 중년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녕감이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적절한 간호 중재 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를 시도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두 집단 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결과, 성별, 종교유무, 교육수준, 결혼상태, 직업유무, 건강상태, 동거가족이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성 비율은 노인집단이 더 많았고, 여성 비율은 중년집단이 더 많았다.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를 가지고 있는 비율은 중년(73.5%)과 노인

Table 5. Ananalysis of the Psychological Well-being Factors Affecting Hi-sense Middle Adults (N = 181)

	B	Beta	t	Tolerance	VIF	Cum Adj. R <sup>2</sup>	F	Durbin_Watson
(Constant)	0.85		5.64					
Self-esteem	0.26	0.35	5.10***	0.48	2.07	0.43	158.50***	1.42
Hope	0.32	0.29	4.66***	0.60	1.67	0.49	99.30***	1.46
Depression	0.12	0.19	3.25**	0.68	1.47	0.51	72.50***	1.54
Marital status	0.07	0.12	2.40*	0.98	1.02	0.52	57.10***	1.57

\* $p<.05$ ; \*\* $p<.01$ ; \*\*\* $p<.001$ .

Table 6. Analysis of the Psychological Well-being Factors Affecting Hi-sense Elderly (N = 209)

	B	Beta	t	Tolerance	VIF	Cum Adj. R <sup>2</sup>	F	Durbin_Watson
(Constant)	0.97		7.61***					
Hope	0.37	0.35	4.95***	0.41	2.44	0.49	187.70***	1.50
Life satisfaction	0.15	0.27	4.90***	0.67	1.50	0.57	130.10***	1.66
Depression	0.19	0.27	3.72***	0.38	2.62	0.59	97.10***	1.68

\*\*\* $p<.001$ .

(59.8%)이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등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 중년(26.5%)이 노인(13.9%)보다 많았고, 노인집단의 대부분은 고등교육 이하 중등교육 수준(74.1%)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로는 중년(76.8%)이 노인(60.3%)보다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이 더 많았다. 직업유무는 중년(68.0%)이 노인(34.9%)보다 직업이 있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건강상태 역시 노인(32.1%)의 경우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이 중년(16.6%)보다 높게 나타났다. 동거 가족관계를 보면, 자녀와 함께 거주를 하는 경우가 중년(60.8%)이 노인(40.2%)보다 다수를 차지하였다. 경제적 수준은 두 집단 모두 보통수준(중년=69.6%, 노인=70.8%)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여, 동질성 검증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두 집단 간의 세대 차이에서 오는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에 있어 심리적 안녕감이란, 다른 환경적 여건이나 역할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고 한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타 연구 결과(Kim, 2007; Son, 2005)를 볼 때, 현대 사회에서는 교육이 점차 대중화됨에 따라 부모와 자녀 세대 간에 교육수준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자녀들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제도로,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이 1990년 33.2%에서 2010년 79.0%로 증가(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1)한 것만 보아도 두 집단 간의 학력의 차이를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Son & Lee, 2006)고 한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는 독립적이기 보다 어딘가 의지하고 싶어 하는 심리적 반영의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동거 가족구성원에 있어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건강상태는 신체적으로 건강할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다는 Kim(2007)의 연구결과와 본 연구결과가 일치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와 비교한 본 결과 연구대상의 차이에 따라 약간씩 결과에 차이가 있으나, 종합해 보면 본 연구결과가 대부분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두 집단의 심리적 안녕감과 연구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희망, 자아 존중감, 생활만족도는 정적관계, 우울은 부적관계로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중년과 노인의 희망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이 높은 사람일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대상 Shin 등(200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희망이 노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 정서의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노인들이 평안한 노후 준비를 위한 간호중재 개발이 요구되며, 특히 전 생애를 통해 항상 희망이 유지 보존될 수 있는 전략 개발이 요구된다.

자아 존중감의 연구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

녕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몇 선행연구 결과(Kim, 2009; Lee, 2006; Son, 2006; Song, 2003)와 일치하는 것으로, 즉, 두 집단 간의 자아존중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숙지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킬 수 있는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개발이 요구된다.

우울에서는, 노인보다 중년이 우울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증이 높으면 심리적 안녕감이 낮고 삶의 의미를 낮춘다(Feldman & Snyder, 2005)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우울이 심리적 안녕감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45세 이상 64세 이하 중년 그룹은 현재 출산율이 이전보다 크게 높아진 시기에 태어나 급격한 경제 성장과 IMF 외환위기,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한 세대로 분주한 현실 생활 속에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나날이 피곤한 일상을 살아야 하므로 노인에 비해 자신에 대한 가치부여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노인 우울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주요 요인들로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가족 결속력이 강할수록 우울 정도가 낮아진다(Kang & Kim, 2000; Kim, 2001)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생활만족도에서는, 노인보다 중년이 생활만족도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생활만족도가 높으면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 연령이 낮으며 종교와 용돈수준에서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내부적으로 가족관계와 같은 관계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문제와 여가활동 등 사회참여문제 등으로 요약하고 있다(Lee & Hong, 2012)는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년과 노인 간 생활만족도에 대한 차이가 직업, 경제적 수준, 현재 건강상태의 영향임을 나타낸 본 연구 결과와도 동일한 결과이다.

셋째, 중년과 노인의 연구변수 차이비교 결과, 심리적 안녕감 정도는 중년이나 노인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t=3.61^{***}$ ), 자아 존중감, 우울, 희망 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활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 존중감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노인이 지각하는 심리적 안녕감 영향변수로 자아 존중감(Kim, 2009; Lim & Jeon, 2003; Son, 2006)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인생을 의미 있고 중요한 것으로 바라보며, 학문적 수행이 우수하고, 실패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적으며, 심리적 손상을 적게 경험하고, 적절하게 분노를 표현하며,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이후에 수행을 더 잘하는 경향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자아 존중감을 증진할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중년과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 영향요인 분석 결과를 살펴보

면, 먼저 중년의 경우 희망, 자아 존중감, 우울, 결혼상태 순으로 변수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생활만족은 심리적 안녕감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종모형의 설명력은 51.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인의 경우 그 영향력의 순서는 희망, 우울, 생활만족도 순으로 희망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중년집단에서 자아존중감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과 비교된다. 최종모형의 설명력은 59.4%로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토대로 희망, 자아 존중감, 우울, 생활만족을 명확히 가질 수 있도록 사회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더불어 긍정적인 삶의 질을 위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간호중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영향 변인을 중심으로 이들에게 보다 성공적인 노화로 자신의 노후를 신체, 심리, 정서 및 영적으로 건강하고 긍정적인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중년에게는 노년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노인은 기존환경을 그대로 수용하고 즐기면서, 두 집단 모두 향후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 제공 및 방향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중년과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개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본 연구가 일부지역의 중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한 연구이므로 확대 해석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 결론

본 연구는 중년과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생활만족도, 자아 존중감, 희망, 우울)을 확인함으로써, 노년의 건강한 삶을 유지, 증진시키는 간호중재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두 집단 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결과, 성별, 종교, 교육수준, 결혼상태, 직업, 건강상태, 동거가족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은 경제 수준을 제외한 나머지 특성 모두에서 동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두 집단의 연구변수 간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중년과 노인의 집단 모두 심리적 안녕감, 희망, 자아 존중감, 우울 및 생활만족도와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두 집단 간 연구변수들의 평균 차이비교 결과, 심리적 안녕감, 희망, 자아 존중감 및 우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두 집단의 심리적 안녕감 영향요인을 확인한 결과, 중년은 자아 존중감, 희망, 우울, 결혼상태가, 노인은 희망, 생활만족도, 우울변수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중년은 자아존중감이, 노인은 희망이 심리적 안녕감에 가장 큰 영향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중년은 자아 존중감이, 노인은 희망이 심리적 안녕감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확인되고, 두 집단 공동으로 희망과 우울이 확인된 바, 모든 사람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여 성공적인 삶을 향유하기 위하여, 이미 젊은 시절부터 건강한 부부관계와 자아 존중감을 유지하면서 희망찬 미래를 꿈꾸도록 유도하면, 우울로부터 벗어나서 만족한 일상생활이 지속되고 결국 늙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영위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이미 젊은 시절 준비하도록 교육시키는 중재가 요구된다.

이상의 결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지역별(도시와 농촌) 심리적 안녕감 정도와 영향요인을 비교하는 연구수행을 제언한다.

2) 심리적 안녕감과 사회 심리적 영향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변인들에 관한 계속적인 연구시도를 제언한다.

3)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심도 있는 질적 연구를 제언한다.

## 참고문헌

- Beck, A. T., Weissman, A., Lester, D., & Trexler, L. (1974). The measurement of pessimism: The hopelessness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20*, 779-785.
- Cho, Y. J. (2007). *The effects of productive activities on women's subjective well-being: An application of the demand-control-support model*. Unpublished docto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Choi, H. I., Chae, H. T., & Song, I. U. (2009).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n relationship between elderly's stressful life events and hopelessness. *The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43*, 183-202.
- Choi, Y. H. (2008). Narrative transfiguration study of cartoon 'land'.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22*(2), 1-16.
- Chon, J. W., & Park, M. S. (2006). A test of causal model for motivation for job performance, job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6*(3), 521-545.
- Diener, E. D.,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Feldman, D. B., & Snyder, C. R. (2005). Hope and the meaningful life: Theoretical and empirical associations between goal-directed thinking and life meaning.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4*, 401-421.
- Hwang, J. H. (2004). *The effects of life satisfaction in perception of physical and health condition with participant in sports the senior citize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Busan.



- Jon, B. J.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Journal of Yonsei publications, 11*, 101-124.
- Kang, H. S., & Kim, K. J. (2000). The cor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d physical health among the aged. *The Journal of Korea Public Health Association, 26*(4), 451-459.
- Kee, B. S. (1996). A preliminary study for the standardization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Korea version. *The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5*(2), 298-307.
- Kim, D. H. (2001). A study on the correlation among family support, self-esteem and depression in elderly. *The Journal of Korean elderly welfare association, Autumn*, 113-114.
- Kim, H. S. (2006). *Impact of life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in elderly people: The case of welfare center us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nam University, Seoul.
- Kim, J. A. (2007). *A study on how social supports impact senior citizens' feeling of well-be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 Kim, M. M. (2009). *New! elder and health*. Hong Kyung Press.
- Kim, K. A. (1998).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 Kim, K. B., Lee, K. H., Sok, S. H., & Oh, H. K. (2002). Effects of meridian exercise on health status, life-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in elders in institutions. *The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4*(1), 5-15.
- Kim, M. S., Kim, H. W., & Cha, K. H. (2001). Analyses on the construct of psychological well-being of Korean male and female middle aged adults. *Th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5*(2), 19-39.
- Lee, B. J., & Hong, S. O. (2012). The effect of older people's leisure activities on their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The Korean Journal of Tourism Research, 8*(2), 139-156.
- Lee, H. G. (1997). A study on promotion of the industry in Korea. *Journal of Kijeon College, 17*, 171-210.
- Lee, H. J. (2006). *The relationship among depressio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institution resi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im, J. Y., & Jeon, G. Y. (2003). The related factors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8*(1), 127-144.
- McDowell, I., & Newell, C. (1996). Psychological well-being. *Measuring health, a guide to rating scales and questionnaires, 2*, 177-237.
- Miller, S. M. (1975).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on sex role perception, interests, and self-esteem in kindergarten girls. *Developmental Psychology, 11*(3), 405.
- Mutchler, J. E., Burr, J. A., Massagli, M. P., & pienta, A. (1999). Work transitions and health in later life. *Journal of Gerontology, 54B*(5), S261.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1). 2011 Statistics of aged. Seoul: National Statistical office. <http://www.kostat.go.kr>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3). 2013 Statistics of aged. Seoul: National Statistical office. <http://www.kostat.go.kr>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yff, C. D. (1989). Happiness a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57*, 1069-1081.
- Shin, J. Y., Lee, Y. A., & Lee, K. H. (2005). The effects of life meaning and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Korean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7*(4), 1035-1057.
- Son, D. S., & Lee, H. J. (2006). Determinants of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The Journal of Korean Welfare for the Aged, 31*, 181-205.
- Son, D. S., & Lee, H. J. (2009). Determinants of psychological well-being of elderly-Focusing on the ec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31*, 181-205.
- Song, Y. S. (200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social support, self esteem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Snyder, C. R., & Harris, C. (1991). The will and the way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dividual differences measure of ho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570-585.
- Taft, L. B. (1985). Self-esteem in later life: A nursing perspective. *Advances in Nursing science, 8*(1), 77-84.
- Veenhoven, R. (1991). Is happiness rela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1), 1-34.
- Wong, P. T. (1989). Personal meaning and successful aging. *Canadian Psychology/Psychologie Canadienne, 30*(3), 516.